

# 정철원 담양군수, 지속가능 정주기반 마련 '박차'

취임 100일

보육·의료·문화·교통 등 균형발전 추진  
은빛급식센터 개관...공동체 돌봄 체계  
생활인구 도내 1위 성과...재방문율 ↑

정철원(사진) 담양군수가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지속가능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그동안의 균형 운영 성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정 군수는 균형 정상화를 위한 기반 정비와 함께,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무장·금성·월산·수북·봉산·대전면 등 지역의 정주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거점별 생활서비스 자족률을 높이고, 보육·의료·문화·교통 등 기반을 연계해 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담양의 대표 농산물인 '담양쌀'은 2년 연속 프랑스로 수출되며, 올해는 단일 국가 대상 200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청년농업인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농 정착 지원과 정책 개선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지난달 문을 연 '은빛급식센터'는 담양읍에 거점을 두고, 정기적인 무료급식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00여명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정 군수는 "정성을 담은 한 끼 식사를 통해 어르신 복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체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인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담양군은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기준 전남도 인구감소지역 중 3분기

연속 생활인구 1위를 기록했다. 평균 생활인구는 약 30만8천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가 35만2천여명에 달해 등록인구의 7.7배를 넘었다.

특히 관광·체육 목적 방문자 비중이 높고, 재방문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해 다양한 세대가 고르게 찾는다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담양군은 이러한 흐름을 정주 인구 확대에 연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원을 투입해 3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에도 2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총 13개 사업, 약 1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

며,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지역 안전 강화,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앞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함께 주민 체감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는 군수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는 현장 중심 행사로, 기존 읍·면 단위에서 325개 마을 단위로 확대해 8월까지 이어진다.

정철원 군수는 "지난 100일간 군민 곁에서 직접 듣고 움직이는 행정으로 군정의 중심에 '주민의 목소리'를 두는 데 집중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담양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 보성군, 주민 체감 '폭염 정책' 전방위 대응

폭염 상황관리 합동 TF 구성·운영  
그늘막·마을별 냉방 용품 지원 등

보성군이 주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정책에 나섰다.

13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균형 2층 소회의실에서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총력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록적 폭염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는 당부에 신속히 대응했다.

보성군은 대통령 당부에 앞서 이미 폭염 상황관리 합동 TF(34명)를 구성·운영하며, 취약계층, 보건·건강, 농축수산 등 분야별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선 상태다.

특히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 10일 조성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의 무더위쉼터 등 폭염 취약시설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폭염 대비 민생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는 의지를 바탕으로 폭염대응의 빈틈을 줄여나가기 위한 행보다.

김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 전수 모니터링 강화 ▲무더위쉼터 410개소 점검 및 냉방기 보급 ▲살수차 확대 운영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대책 ▲폭염 대응 행동 요령 집중



김철우 보성군수가 '폭염 대비 민생 현장 방문'으로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 직접 점검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홍보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치를 전 부서가 신속히 실행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실의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마을별 안부 확인 강화, 냉방 용품 긴급 지원, 읍·면 마을 방송 1일 3회 운영, 재난안전문자 및 부서별 맞춤형 군정 알림 문자 발송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주요 도로 등 거점 15개소에 그늘막을 설

치하고, 무더위쉼터 내 교육 프로그램(냄비 받침·수제 비누·편백 목베개 만들기, 위급상황 대처 교육)과 폭염 예방 물품 배부도 병행하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117년 만의 기록적인 무더위 속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서별 맞춤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여수시는 오는 11월21일까지 물류 취약지역인 10개 섬을 대상으로 '섬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드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모습. <여수시 제공>

## 여수시, 10개 섬에 '드론 배송 서비스' 추진

생활 물품·배달 음식 등

여수시는 13일 "오는 11월21일까지 물류 취약지역인 10개 섬을 대상으로 '섬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수시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5년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천만원

을 지원받아 시행했다.

드론 배송은 3곳의 배송거점(돌산 진모지구·돌산 작금항·화정면 개도)을 통해 10개 섬 지역(송도·소항간도·대항간도·소두라도·대두라도·금도·개도·상화도·하화도·제도)에 설치된 배달 지점으로 이뤄진다.

배송 물품은 생활 물품과 배달 음식 등이며, 초기 배송 중량은 5kg으로 시작해 10월에는 최

대 10kg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송일은 권역별로 매주 또는 격주 금요일이며 배송비는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이용자는 배송 앱 '여수플라이' 또는 전화(061-641-4069)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되며, 물품이 배달 지점에 도착하면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고, 주민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또한 여수시는 드론 배송망을 활용해 재난 구호물자나 취약계층 지원 물품 배송, 긴급유원 전달, 위험지역 순찰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 장성 "여행 경비 최대 20만원 지원"

9월까지...스탬프 투어·택시비 무료도

장성군은 13일 "여름 성수기인 7-9월 동안 장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대 2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장성 방문의 해' 누리집을 통

해 여행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여행 후 10일 이내에 여행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담긴 결과보고서를 내면 된다.

경비 지출 금액에 따라 5만·10만·15만·2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이 신청인의 주소지로 배송된다.

지출 인정 항목은 장성지역 내 숙박업소, 식당, 카페숍 등이 포함된다. 단 캠핑장, 카리안, 글램핑장은 숙박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인증사진과 도장을 모으면 선물을 주는 '스탬프 투어', 축령산 편백수 트래킹 이용객에게 무료 택시 이동을 제공하는 '편백수 트래킹 관광객 이동수단 전액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운영 중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 화순, 공공배달앱 '떡깨비' 할인 이벤트

1만2천원 이상 주문 시 3천원 할인

화순군은 13일 "오는 31일까지 공공배달앱 '떡깨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여름맞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3천원 할인 쿠폰을 1인당 4회까지 제공하며, 떡깨비 앱에서 1만2천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포스터>

'떡깨비'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으로 민간배달앱 대비 훨씬 낮은 중개 수수료(15%)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입점비나 광고비도 없다.

결제 수단으로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타 할인쿠폰과 중복 사용도 가능해 이용자들이 더욱 풍성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예정이다.

떡깨비는 휴대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떡깨비'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공공배달앱 '떡깨비'를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순천시 '새 용산전망대' 개방

2층 목재 구조물...생태 경관 한눈에

순천시는 13일 "지난 11일 순천만의 원형 생태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용산전망대' (사진)를 새롭게 단장 후 개방했다"고 밝혔다.

용산전망대는 단순한 조망을 넘어 원시적인 자연생태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한 역사를 한눈으로 응축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새롭게 건립된 용산전망대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2층 목재 구조물로 지어졌으며, 건축면적은 124.88㎡이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이 동약자를 위해 용산전망대 진입 구간 약 90m에 경사형 무장애 데크길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망대에서는 S자 수로를 따라 펼쳐지는 갈대밭과 칠면조 군락, 낙조, 흑두루미 도래지 등 순천만의 대표 생태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순천=정기 기자



순천시는 이곳에서 생태해설, 철새 탐조, 명상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람사르길·갈대숲·흑두루미 도래지 등과의 연계 강화해 자연 기반 생태치유관광과 생태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용산전망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순천만국가정원 및 향유 조성된 순천갯벌치유관광플랫폼과 연계해 1박2일 이상의 체류형 생태치유 대표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전망대는 2010년 조성돼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철거됐다. /순천=정기 기자



## 구례군,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마산면 화엄사가 일대 환경개선

구례군은 13일 "구례화엄 자연발상 음식거리가 전남도 주관 2025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구례군은 마산면 화엄사가 일대에 40년 전통의 산채정식, 버섯전골을 주 메뉴로 한 음식거리로 조성, 건강한 먹거리 명소로 되살릴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을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상시 조형물과 벽화·경관 조성, 간판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내년까지 10여억원을 들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화엄 자연발상 음식거리는 단순한 식도락을 넘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구례의 건강한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향후 비전, 치유, 테라피 푸드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